

H. G. 크릴 저, 이성규 역, 『공자, 인간과 신화』

함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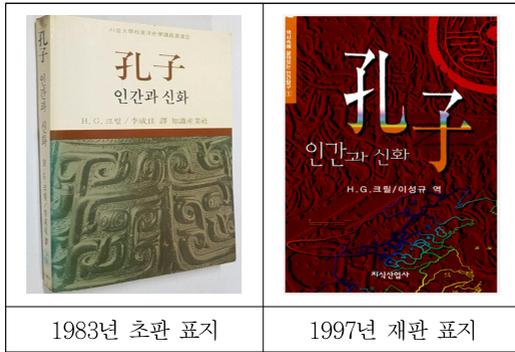
1.

1995년 11월 23일이었다. 우연히 학교 구내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해 구입한 날이다. ‘모자이크판을 맞추어 나가듯 孔子를 알아간다’라는 맨 앞쪽의 자필 메모가 보인다. 이 책을 정독하며 매우 크게 감탄했다. 공자를 파악하는데 『논어』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큰 학적 충격을 받았다. 신선했다.

2009년 성호학파의 맹자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으로 그 해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주는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다산학술문화재단의 여러 학술대회와 연구기획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활동할 당시 다산학술문화재단에는 정해창 이사장님께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한번은 경학을 한다는 이유로 당신께서 재미있게 읽었다는 책을 하나 보내주셨다. 이 책, 『공자, 인간과 신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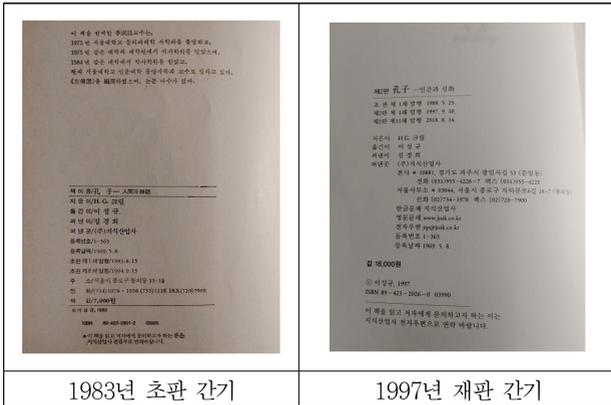
2020년 9월 경상국립대 한문학과로 부임하고 나서 이듬해 가을부터 『논어』를 강의했다. 이 책은 1번 참고문헌이었다. 다시 이 책을 보게 되었다.

*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 E-mail: alongdiri@hanmail.net



2.

내가 처음 구입한 책은 1983년 8월 15일에 초판을 인쇄한 이래의 8쇄로 1994년 9월 15일 출간한 책이다. 이 당시 역자이신 이성규 선생은 본인이 수학한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정해창 이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책은 제2판의 11쇄로 2018년 8월 14일에 출간한 책이었다. 2018년 당시 이성규 선생은 학술원회원이었고 『중국 고대제국 성립사 연구』, 『사기-중국 고대사회의 형성』 등 당시 학계에서는 이



미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다수의 저작이 있었다. 그런데 2018년의 재판 11쇄의 간기에는 초판 1쇄의 발행을 1988년 5월 25일로 '誤記'해 놓았다.

이 초판의 발행이 1983년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성규 선생님께서 1984년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사학위를 받는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 책의 번역에 매진하셨을 선생의 노고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자의 말 말미는 “이 책의 번역을 적극 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격려해주신 閔斗基 교수, 번역상의 난점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金容德 교수 두 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상업성이 약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준 지식산업사에도 감사를 드린다”로 마무리되고 있다. 아마도 민두기 교수는 역자 본인의 지도교수였을 것이며, 김용덕 교수 역시 그 논문의 심사위원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책의 번역에 온통 신경을 쏟았을 이성규 선생과 그 과정을 훤히 바라보면서도 이 작업을 응원하신 두 교수님, 결과적으로는 상업적인 성공까지 획득했지만 출간 당시에는 아직 박사학위도 받지 않은 젊은 동양사학 연구자의 책을 출간해 주는 상당한 모험을 감행한 지식산업사 덕분에 우리는 이 귀한 책을 얻게 되었다.

3.

그럼 역자는 무엇이 이끌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일까? 심지어 자신도 크릴 교수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책이 지닌 가치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譯者의 말, 그 일부를 옮겨본다.

이 책은 적어도 앞에서 지적한 공자연구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며, 가장 순수한 학자적 양심과 정열에서 출발하여 수준 높은 성과를 올린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제시한 인간미 넘치는 정신적인 거인 孔子, 생동하는 제자들의 개성, 유가적인 원리와 다른 학파의 명쾌한 대비, 初期 儒敎史의 상세한 고찰, 서구 근대 사상에 미친 공자사상의 영향 등은 다른 어떤 孔子傳記類에서도 볼 수 없는 감명과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극히 전문적인 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술형식을 취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공자 전기 중에서 역자가 이 책을 자신있게 추천하는 것이며(비록 30여 년 전에 나온 것이지만), 아울러 이 책을 읽고 난 후 『논어』의 재독을 권하고 싶다.

이성규 선생이 이 책에 얼마나 깊이 매료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역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 H. G 크릴은 1905년 시카고 출생으로,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의 2년간의 연구와 4년간(1932~1936)의 북경 유학을 거쳐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줄곧 재직하면서 중국고대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학자이다.

그의 학풍은 정치한 문헌비판은 물론 金文·甲骨文에 대한 소양을 토대로 동서양의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섭렵하면서 중국 고대의 사상 및 제도의 기원을 견실하게 추구하는 것이 특색이며, 특히 중국문화가 서양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공자사상이 17,8세기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및 문관 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공자의 진면목을 찾으려는 최초의 시도도 아니고, 최후의 시도가 될 것도 아니며,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일보 전진한 것만 된다면 만족할 따름”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책은 이후 공자와 논어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이 그의 아내인 로레인 크릴의 박사논문에서 계기가 되어 부부간의 토론을 통해 그 기초를 잡은 것이나 1945~46년 2년동안 록펠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온전히 이 연구에만 전념했던 것은 이 책의 탄생과 관련하여 흥미롭게 볼 대목이다. 그가 사의를 표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과 도서관 직원들의 인명은 그가 이 책을 집필하며 얼마나 많은 학문적 고투와 개고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여준다. 이 책은 1949년에 출간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논어』 憲問편 26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여 스스로를 “과실을 적게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못한 사람〔欲寡其過而未能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4.

그런데 정작 저자는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려 했던 것일까? 그는 동아시아에서 공자의 이론을 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여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각에 공자는 인류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근대 서구의 사회 및 정치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공자의 철학이 그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의 그러한 오해는 그에게 매우 의아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오해가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다. 그의 말을 들어 본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서 일단 눈을 돌려 그 배후에 있는 인물에 관한 傳承을 조사해 보면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단지 고대의 관행을 부활시키려고만 하였던 극히 비창조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자의 생애에 관한 기록에도 그

는 무기력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상을 구현하는 데 크게 실패한 사람으로 자주 묘사되어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없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전승대로라면 이 사람은 역사상 실증된 그런 결과를 가져올 만한 위인이 못되지 않은가? 실제의 공자가 정확하게 전승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도 그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보려는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틀림없다는 느낌’으로 공자의 전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규명해 보겠다는 것이다. 무려 이천년도 더 이전의 고대 문헌에서 공자에 대한 기록과 그 전승의 오류를 짚겠다는 것이다. 금문, 갑골문에 대한 소양은 물론 정치한 문헌비판이 가능했던 그의 학문적 수준에서 나온 포부이자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고전문헌의 해독에도 급급한 처지로서는 놀랍고 부러울 따름이다. 이런 착목처가 바로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책의 가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 책의 後記에 붙어있는 그의 공자에 대한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간 상호간의 도덕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 상호간의 성공적인 협동’에 있어서 공자의 제안은 여전히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의 실천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는 공자가 “협동적인 국가를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정열적으로 그 실현에 헌신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철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자는 “극단적인 열정과 철저한 사려심을 조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논리정연한 민주주의의 입장을 손상할지도 모르는 과도한 요구는 결코 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또 “사람은 도를 확충시킬 수 있지만 도가 사람을 확충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생활방식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공자는 근대 민주주의에서 이따금 연상되는 것보

다 더 큰 열정과 열의를 갖고 그것을 주장했다고 짚었다.

조금은 과도하게도 볼 수 있는 공자철학과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한 탐구는 그가 고전을 연구하면서도 당대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전혀 놓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는 말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최대의 싸움은 악에 대한 극적인 투쟁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권태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을 공자는 인식하였던 것 같다.”

참으로 형형한 안목이다.

